12월 20일(월) / 욥 25-27

▶ 내용요약 : 욥기 25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비난이 기록되어 있다. 빌닷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에 26장에서 욥은 빌닷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반문한 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해 초라한 인간의 지혜에 대해 역설했다. 사람의 깨달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욥을 향한 친구들의 비난과 그들의 지혜는 눈앞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27장에서 욥은 나머지 세 친구에 대해 풍자하며 말했다. 그는 진실함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악인의 멸망을 선포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26장)

"그는 능력으로 ( )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 )을 깨뜨리시며"

▶ 생각하기 :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자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제한적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12월 21일(화) / 욥 28-30

▶ 내용요약 : 욥기 28장에서 욥은 사람이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 길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만다. 그러나 지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과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서 29-30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풍요의 복에 대해 회상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욥 또한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가 다 욥의 대적이 되어 그를 공격했고,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애곡하는 것뿐이었다.

▶ 질문 : 욥은 지혜의 길과 위치를 누가 안다고 했는가? (28장)

▶ 생각하기 : 교만은 첫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어떤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겸손임을 기억하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다.

12월 22일(수) / 욥 31-33

▶ 내용요약 : 욥기 31장에서 욥은 또다시 자신의 결백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음욕을 품은 눈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또한 남을 속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간음을 행하거나 자신의 종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을 억압하지 않았다. 오히려 욥은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에 32-33장에서 엘리후는 화를 내면서 욥과 나머지 세 친구를 꾸짖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는 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 또한 세 친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 질문 : 욥과 세 친구를 꾸짖은 사람은? (32장)

▶ 생각하기 :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욥 또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12월 23일(목) / 욥 34-36

▶ 내용요약 : 욥기 34-36장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고발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요청했다. 또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엘리후는 욥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분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일을 우러러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 질문 : 엘리후는 욥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했는가? (36장)

▶ 생각하기 :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친구와 이웃의 고난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이웃을 향한 자비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호 6:6과 요일 4:20을 읽으라)

12월 24일(금) / 욥 37-39

▶ 내용요약 : 욥기 37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엘리후에 의하면, 온 우주 만물과 자연 현상이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했다. 38-3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하신 후 그것을 대답하게 하셨다. 그러나 우주의 시작과 자연세계의 일들에 대하여 욥은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38장)

"너는 ( )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또한 그의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보여주셨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쌓여있던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12월 25일(토) / 시 25-27

▶ 내용요약 : 시편 25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간구는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26편 또한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특히 자신의 영혼을 악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27편)

"여호와는 나의 ( )이요 나의 (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 생각하기 : 그 누구도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12월 26일(일) / 시 28-30

▶ 내용요약 : 시편 28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마시기를 호소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을 끌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탄식으로 자신의 시를 끝내지 않았다. 그의 탄원은 소망의 찬송과 확신에 찬 고백으로 향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29편은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도록 초청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소리로 묘사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물 위에 있다. 또한 그분은 우렛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는 힘이 있고 위엄차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확신에 찬 소리로 선포했다. 30편은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신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30편)

"그의 ( )은 잠깐이요 그의 ( )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 생각하기 :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가장 지혜로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응답하신다. 주저앉았을 때,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